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책임연구원 : 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안선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불평등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전문계고의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음.

2. 연구내용

-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
-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

3. 연구결과

- 첫째, 중등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을 살펴본 결과, 원래 전문고의 기능에 충실한 전문고-취업희망 유형집단 대비 인문고-진학희망 유형집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득이 높거나 학업성적이 높거나 교육포부가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전문고 내부에서 일어난 계열화 즉, 전문고-취업희망 집단과 전문고-진학희망 집단의 경우에는 교육포부만이 유일하게 이들 집단을 구분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이들 세 계열화의 결과가 이들 내부 집단구성원들에게 미친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포부, 학교적응도, 자아관, 생활만족도의 네 측면으로 나눠 그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포부, 학교적응도, 자아관, 생활만족의 모든 측면에서 인문고-진학, 전문고-진학, 전문고-취업의 순으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계열화에 속하게 된 학생들은 높은 교육포부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적응하며 높은 자아관과 정체성을 지니며 높은 생활만족도를 지니고 활기차게 생활해각 있는 반면, 중간정도의 계열화에 속한 사람들은 중간정도의 정체감으로, 낮은 계열화에 속하게 된 학생들은 낮은 정체감으로 낮은 교육포부, 낮은 학교 적응도, 낮은 자아관, 낮은 생활만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함.

4. 정책적 제언

- 1) 전문고의 위상 재정립 :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소득과 학업성적을 매개로 일차로 전문고-인문고간의 수직적인 분화가 일어나 차별적으로 계열화하고, 이차로 다시 전문고안에서 교육포부를 매개로 취업지향과 진학지향의 이차 수직적인 분화가 일어나 다시 이차 차별적으로 계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문-진학, 전문-진학, 전문-취업의 순으로 수직적 차별화의 계열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한국의 교육계열화가 한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계열화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계열화의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임. 즉, 미래의 과학영재를 길러내는 과학고, 미래의 어학영재를 길러내는 외고처럼 전문고의 위상정립을 미래의 기술영재를 길러내는 학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전문고의 명칭을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마이스터고 등으로 개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 2) 전문고 직업교육 기능의 회복 및 개선 : 다음으로 전문고의 직업교육 기능을 미래 한국산업인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술인력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전단계인 기초 기술교육을 함양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프로그램 단계에서부터 전문고와 산업현장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분야의 이론 교육과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병행하여 장차 미래 최고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술함양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충실히 닦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 3) 전문고 졸업생의 졸업후 계속 교육의 제도화 : 다음으로 전문고 기술영재들의 졸업후 진로성취과정에서 자신의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진로트랙의 제도화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고를 졸업한 기술영재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 직장과 병행하여 고등교육의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상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한 계속 교육기회부여의 제도화가 필요함. 그리고 전문고를 졸업한 기술영재들이 졸업후 관련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우대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고보다 향상된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관련 계열의 대학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관련 계열 대학의 기술교육프로그램은 전문고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성을 띠는 프로그램으로 하되 그보다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5
II.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	9
2.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	11
3.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	14
III. 분석결과	
1. 조사개요	19
2.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	25
3.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	28
IV. 결론	
1. 연구의 요약	37
2. 정책적 제언	38
참고문헌	41

표 목차

<표 Ⅲ-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1
<표 Ⅲ-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2
<표 Ⅲ-3> 중2 패널 4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3
<표 Ⅲ-4> 중2 패널 5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24
<표 Ⅲ-5> 고등학교 단계 진학선택 계열화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27
<표 Ⅲ-6> 진학계열화별 교육포부	28
<표 Ⅲ-7> 진학계열화별 미래 희망직업 실현 기대	29
<표 Ⅲ-8> 진학계열화별 학교규정 부적응	29
<표 Ⅲ-9> 진학계열화별 학교 공부흥미도	30
<표 Ⅲ-10> 진학계열화별 학교친구관계	30
<표 Ⅲ-11> 진학계열화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30
<표 Ⅲ-12> 진학계열화별 자아관	32
<표 Ⅲ-13> 진학계열화별 생활만족도	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올 초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이스터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 2008).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현행 고교평준화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틀 안에서 고교 교육의 다양화, 자율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 기숙형 공립고 150개 설치, 직업교육분야의 전문계고 육성정책인 마이스터고 50개 육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위한 계열화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은 과거 70-80년대에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의 미비, 전문계고 졸업 취업자의 낮은 전공-직업 일치도, 성적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전문계고 학생들의 낮은 자아존중감, 이로 인한 부적응과 학습의욕 저하현상, 동일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 및 전문계고 출신자에 대한 특별전형 기회 확대 등에 기인해 대학진학률이 취업률을 상회하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열풍 심화 등 원래의 직업교육을 위한 계열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학생들의 학업 능력, 교육적 성취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의 목적과 정당성은 오랫동안 교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Hout, 2004). 이러한 교육의 차별화,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룰수록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은 더욱 극명해 진다. 왜냐하면, 이른 시기의 교육적 성취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성취적

특성 요인보다는 가정 배경과 같은 귀속적 특성의 요인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단계의 계열화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계열이 한번 정해지면 계열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열이 다른 학생들은 질적으로 다른 교육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이후 학생들의 삶, 특히 사회적 지위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는 근본적인 교육목적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과정의 차이뿐만 아니라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나 가족 배경,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갖는 기대 수준, 졸업 이후 진로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회적 위상은 학생과 학부모의 전문계 고등학교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대부분 전문계 직업교육을 원해서라기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다(서우석 외, 2007). 이러한 전문계 고등학교 기피 현상은 해마다 일어나는 전문계 고등학교 입학생의 미달 현상을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 이후 전문계 고등학교내에서도 대학진학자가 급증하여 2006년에는 68.6%, 2007년에는 71.5%의 대학진학률을 보임에 따라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유형과 취업을 희망하는 유형의 내부 계열화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진학계열화의 유형을 고려할 때 인문계/전문계-진학희망/전문계-취업희망의 세가지 유형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계열화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계열화가 이후 학생들의 삶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계/전문계-진학희망/전문계-취업희망의 진학 계열화에 미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교육 기회가 배분되는 기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를 다방면으로 추적해봄으로써 고등학교 단계의 계열화가 실제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불평등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전문계고의 정책적 개선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연구내용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첫째, 다음의 II장에서 한국의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둘째, III장에서 분석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 이 글의 주제에 대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부터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2-4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교육, 모교육, 월평균가구소득, 사교육비, 형제자매수, 부모에착, 교육포부, 학업성적, 성별(남자=1), 절대빈곤 무유(유=1)을 독립변수로 일반고-진학희망, 전문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희망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 진학계열화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계열화별로 교육포부, 미래희망직업 실현기대, 학교규정 부적응, 학교 공부 흥미도, 학교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자아관, 생활만족도 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
2.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3.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

II.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업능력, 교육적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편성하는 계열화, 능력별, 수준별 편성 등이 이루지고 있는데, 그 성격과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Lüdtke, Marsh, Köller & Baumert, 2006).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계열화가 일어나는 제도 수준(교실, 수업, 학교), 계열 결정 시 성취수준의 역할(계열 결정이 학업성취에 의해 결정되는지 혹은 그 외의 흥미,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교육비 부담 능력 등), 계열 선택이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Trautwein, 2005).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와 같은 나라들은 학교 단위에서 경직된 계열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주로 10세에 능력별로 학교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전기 중등 교육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유형의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 하에 교육을 받고 후기 중등 단계에서는 학교 내 혹은 분리된 학교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계열 선정은 학생의 흥미나 부모의 선호 또는 재정적 부담 능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학업 성취 수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학업 성취 수준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의 상호 작용 결과라는 점에서 순수하게 업적 중심이 아닌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고 해서 대학 진학의 길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계열화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과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진학에 계열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근·변수용, 2007).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학제가 6-3-3-4제로 운영된 60여 년간 각 단계

별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갖는 의미와 역할은 변화되어 왔다.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일반계와 전문계로 구분되어 진학과 취업이라는 상이한 목적을 추구해왔다. 교육의 기회가 매우 한정된 시기에 고등학교 교육은 인문계와 전문계를 막론하고 사회의 각 영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엘리트 교육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진학률도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는 대학교육 준비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유능한 기능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교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욕구 증대, 학령인구의 감소 등 사회의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정체성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강형근, 2003). 대학교육이 급격한 비율로 보편화되면서 이전에 전문계 고등학교가 수행하던 중국교육, 취업준비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중등 후기 직업교육의 예비단계, 대학입시 준비 단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1997년 이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은 계속 80%를 넘고 있으며, 2003년에는 90.1%의 최고치를 보였다. 2007년에는 87.1%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각 해당연도). 또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비율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1990년에 8.3%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1997년에는 29.2%, 2006년에는 68.6%, 2007년에는 71.5%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2007년 현재 99.7%에 이르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진학 여부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 아니면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고등교육 기회와 성취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줄 것이며(오정란, 1998; 방하남·김기현, 2002) 따라서 고교 진학단계 계열

선택이 이후 학생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단계 계열화는 자신의 학업 목표와 자신에 처한 환경에 맞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적 합리성에 기초해 있기보다는 사회계급간 차이를 확대하는 잠재적인 차별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Gamoran & Mare, 1989, 김기현, 200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불리하기 때문에 전문계를 선택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판단하여 2004년부터 대학의 정원 외 3%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할당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학생들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먼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구분이 더욱 불분명해짐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대학교육 기회의 증가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의 확대로 인해 높은 학업 성적 없이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학업을 오히려 더 소홀히 하는 풍토도 목격된다(이용환 외, 2008). 이렇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존립 이유와 학생들의 학업 의욕 및 수행 능력 저하를 부추기는 기현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문계 고등학교가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등학교 단계의 계열화의 의미와 목적, 방식에 대해 재고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2.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계열 선택이 학업 성적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계열 선택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업성취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로는 성별, 가정배경, 가족구성, 학업성취,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인 교육포부 및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Sewell & Hauser, 김경근 & 변수용, 2007에서 재인용)등이 있다. 개인 차원의 요인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부모의 직업지위와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가 높으며, 보다 서열이 높은 학교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대학졸업자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므로 대학 진학만으로는 상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기득권층은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지위 경쟁에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의 현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방어적 교육 투자’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Throw, 1972).

이와 같이 교육적 기회와 성취에 대한 가족의 사회계층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은 사회 경제적 요인이 교육 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인다. 방하남·김기현(2002)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 즉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가구소득, 사회적 자본 소유 여부가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한국 사회에서는 계열별 배치에 의해 사회계층에 따른 1차적인 선별과 거르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김경근과 변수용(2007)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포부수준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이 자녀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육 계층화가 일차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계열화를 통해 발생하고, 이후에 그것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진학 여부와 진학하는 대학의 위세 등과 관련된 계층 간 차이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교육비의 투자도 부모의 배경변수가 전환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직업과 소득이 사교육을 매개로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정영애 · 김정미, 2002; 김현주 · 이병훈, 2005).

가족구성 요인도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제자매수가 적을 경우 교육 성취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분배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형제자매수가 많을 경우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Powell & Steelman, 1993). 또한 평균적으로 한부모 가구의 아동들은 양부모 가구의 아동들보다 사회정서적, 인지적 발달 등 여러 가지 발달지표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McLanahan, 1997), 이는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구인회(2003)의 연구는 가족 배경 중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요인 모두 진학교 교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을 통제할 경우 가족구조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으며, 빈곤의 영향도 가족의 구조를 통제할 경우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요인 또한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구성원이나 의미 있는 타자의 관심, 격려, 기대, 역할모델 등 사회심리적 자원 자체도 사회계층간에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학업성취 및 계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학교에서의 태도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계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와 자아개념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Campbell, 1990), 심리적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적응력이 높으며(장희순 · 이영, 1990), 학교생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차유림, 2001). 또한 부모와 긍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학습동기가 높아 이는 높은 학업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박행모 외, 2002). 김성식(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생활 및 교육수준에 대한 만족감은 일반계 고교 진학 비율과 정적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차원의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소재

지와 상급학교 진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에 따르면, 거주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학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장상수, 2000; 방하남·김기헌, 2002). 강영혜 외(2005)의 연구에서도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비율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나타난다. 특히 도시 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

계열화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갖는 열망이나 학습능력을 개발해 내는 역할을 한다(Coleman, 1988). 이러한 맥락에서 계열화가 학생의 성취,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의 여부는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계열구조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갖게 되는 정체성은 학생의 진로 포부, 사기, 행복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Ireson & Hallam, 2001; Lucas, 1999; Oakes, 1985; Yonezawa, Wells & Serna, 2002).

계열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학력이 낮은 계열에 속하게 된 학생들은 열등한 것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열등한 학습 환경과 낮은 기대로 인해 상대적 학업 수행 능력이 점차 저하될 것으로 본다(Oakes et al., 1992). 또한 계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미래에 갖게 될 사회적 지위와 직업에 대해 낮은 기대를 형성하게 되며(Lucas, 1999), 자아 개념, 흥미, 교육 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계열화는 높은 계열의 학생의 동기는 높이며, 낮은 계열 학생의 동기는 낮춤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erends, 1994; Lewis & Cheung, 2006; Oakes, 1985). Hanushek·Wößmann(2005)은 초·중·고등학교와 중등 단계에서 계열화가 이루어지는 국가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해 조기의 교육의 계열화가 학업 수행과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살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계열화는 불평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학업 수행의 전체 평균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등과 효율성 두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유사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침으로 인해 학습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계열화가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연구도 이루어졌다(Marsh & Craven, 2002; Marsh & Hau, 2003). 자신의 능력보다 상위 능력 집단에 배치되는 것이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하위 집단에 배치되었을 때 오히려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은 자아 개념은 자신이 속한 학급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많은 학급이나 학교보다,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많은 학급이나 학교에서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 진학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낮은 성적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서우석 외, 2007; 박창남, 2002). 이와 같은 학교 선택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2006년 현재 전문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은 2.61%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0.79%의 3배가 넘는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중도탈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에서의 부적응, 불만족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이용환 외, 2008).

계열 선택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교 생활 및 일탈 행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계열(lower track)의 학생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배경 출신일 경우가 많고, 과거에서부터 학업의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소외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집중됨으로 인해 이들의 학교 부적응 및 일탈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Gamoran & Berends, 1987). 이전 연구

에서는 낮은 계열의 학생들이수록 약물복용, 범죄 등 일탈행위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Gamoran & Berebds, 1987; Rosenbaum, 1980; Slavin, 1990; Tygart, 1989). Crosnoe(2002)의 연구에 따르면 낮은 계열의 학생들은 높은 계열의 학생들에 비해 시간이 지나면서 일탈행위를 하는 친구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낮은 계열의 학생들이 학교, 가족, 공동체와의 유대가 약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영향을 더욱 강하게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p. 161).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인해 일탈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자신의 삶에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일탈 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p. 164).

Ⅲ. 분석 결과

1. 조사개요
2. 중등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
3. 중등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

III. 분석결과

1. 조사개요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다전망적 패널조사설계(multi point prospective panel survey design)하에 2003년 기준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향후 6년간 동일표본 반복 추적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5차년도 자료 중 2-4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는 2003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청소년들과 부모 모두를 성공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3,697명의 93.3%인 3,449명이었고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4명이었다.

2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2.4%인 3,188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3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6%인 3,12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4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적조

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90.5%인 3,12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5차년도 자료는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구축된 3,449명의 청소년들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청소년을 기준으로 1차년도 조사대상자 3,449명의 86.0%인 2,96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보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를 측정한 자료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확한 학력, 정확한 가구수입 등을 알지 못해서 측정의 오류가 많았던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학력, 가구수입 등을 청소년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III-1〉 중2 패널 2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 사례수(%)
서울특별시	587	573	528	89.9%	92.1%
인천광역시	199	196	185	93.0%	94.4%
경기도	773	765	675	87.3%	88.2%
강원도	123	123	103	83.7%	83.7%
대전광역시	102	102	99	97.1%	97.1%
충청도	255	254	245	96.1%	96.5%
광주광역시	137	136	132	96.4%	97.1%
전라도	249	247	231	92.8%	93.5%
부산광역시	255	253	246	96.5%	97.2%
울산광역시	106	106	105	99.1%	99.1%
대구광역시	212	212	201	94.8%	94.8%
경상도	451	450	438	97.1%	97.3%
합계	3,449	3,417	3,188	92.4%	93.3%

1) 전학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88명)의 비율: 92.4%
-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88명)의 비율: 93.3%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1%
- ※ 조사가능 패널수(3,417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106명)의 비율: 90.9%

〈표 III-2〉 중2 패널 3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600	584	520	86.7%	89.0%
인천광역시	198	191	175	88.4%	91.6%
경기도	775	761	685	88.4%	90.0%
강원도	121	119	107	88.4%	89.9%
대전광역시	102	101	97	95.1%	96.0%
충청도	249	247	237	95.2%	96.0%
광주광역시	138	137	124	89.9%	90.5%
전라도	241	238	221	91.7%	92.9%
부산광역시	254	250	234	92.1%	93.6%
울산광역시	108	107	105	97.2%	98.1%
대구광역시	215	214	190	88.4%	88.8%
경상도	446	442	429	96.2%	97.1%
제주도	2	2	1	50.0%	50.0%
합계	3,449	3,393	3,125	90.6%	92.1%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0.6%
-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사례수(3,125명)의 비율: 92.1%
-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89.3%
- ※ 조사가능 패널수(3,393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사례수(3,081명)의 비율: 90.8%

〈표 III-3〉 중2 패널 4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597	573	503	84.3%	87.8%
인천광역시	199	190	174	87.4%	91.6%
경기도	784	762	689	87.9%	90.4%
강원도	121	120	114	94.2%	95.0%
대전광역시	100	96	94	94.0%	97.9%
충청도	248	242	237	95.6%	97.9%
광주광역시	136	134	129	94.9%	96.3%
전라도	240	234	220	91.7%	94.0%
부산광역시	257	252	235	91.4%	93.3%
울산광역시	108	105	104	96.3%	99.0%
대구광역시	216	213	194	89.8%	91.1%
경상도	441	435	426	96.6%	97.9%
제주도	2	2	2	100.0%	100.0%
합계	3,449	3,358	3,121	90.5%	92.9%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21명)의 비율 : 90.5%

※ 조사가능 패널수(3,358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3,121명)의 비율 : 92.9%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077명)의 비율 : 89.2%

※ 조사가능 패널수(3,358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3,077명)의 비율 : 91.6%

〈표 III-4〉 중2 패널 5차년도 조사의 표본유지율

	조사대상 패널수 ¹⁾	조사가능 패널수	조사성공 사례수	조사대상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조사가능패널수 대비 조사성공사 례수(%)
서울특별시	597	580	468	78.4%	80.7%
인천광역시	199	190	164	82.4%	86.3%
경기도	782	760	642	82.1%	84.5%
강원도	120	119	112	93.3%	94.1%
대전광역시	101	96	95	94.1%	99.0%
충청도	249	239	229	92.0%	95.8%
광주광역시	137	137	128	93.4%	93.4%
전라도	240	227	208	86.7%	91.6%
부산광역시	256	249	223	87.1%	89.6%
울산광역시	108	104	102	94.4%	98.1%
대구광역시	216	216	189	87.5%	87.5%
경상도	441	433	407	92.3%	94.0%
제주도	3	3	0	0.0%	0.0%
합계	3,449	3,353	2,967	86.0%	88.5%

1) 전학, 이사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지역별 조사대상 패널수 변동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2,967명)의 비율 : 86.0%

※ 조사가능 패널수(3,353명) 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사례수(2,967명)의 비율 : 88.5%

※ 조사대상 패널수(3,449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2,925명)의 비율 : 84.8%

※ 조사가능 패널수(3,353명) 대비 청소년·부모 조사성공 사례수(2,925명)의 비율 : 87.2%

2.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

우선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 요인부터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 고교진학과정에서의 진학계열화는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고와 취업을 목적으로는 전문고의 두 갈래로 나뉘지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전문고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크게 일반고-진학희망, 전문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희망의 세 갈래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전문고-취업희망 유형은 원래의 전문고 기능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여겨지는 집단이며, 전문고-진학희망은 원래의 전문고 기능보다는 변화된 제도와 환경을 따르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등단계 진학계열화를 이처럼 세 갈래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표 III-5>는 전문고-취업희망을 기준으로 일반고-진학희망 유형과 전문고-진학희망 유형의 중등단계 진학 계열화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독립변수는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 따라 부교육, 모교육, 월평균가구소득, 사교육비, 형제자매수, 부모애착, 교육포부, 학업성적, 성별(남=1), 절대빈곤(유=1)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전문고-취업희망 유형 대비 일반고-진학희망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교육, 모교육, 사교육비, 형제자매수, 부모애착, 절대빈곤 변수는 아무런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월평균소득 변수와 교육포부, 학업성적, 성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고-취업희망 유형보다는 일반고-진학희망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text{Exp}(B)=1.004^{**}$), 교육포부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고-진학희망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1.895^{***}$), 학업성적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반고-진학희망 유형을 선택($\text{Exp}(B)=1.52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일반고-진학희망 유형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고-취업희망 유형 대비 전문고-진학희망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교육, 모교육, 월평균가구소득,

사교육비, 형제자매수, 부모애착, 절대빈곤 등 아무런 변수도 전문고를 통한 진학희망 유형의 진로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일하게 교육포부 ($\text{Exp}(B)=1.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중등단계 진학계열화는 우선 학업성적, 월평균가구소득 등을 기준으로 일반고와 전문고로 나뉘진 후에 전문고 재학생중 일부가 다시 대학진학을 추진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고등학교 단계 진학선택 계열화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일반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희망 기준)	전문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희망기준)
	Exp(B)	Exp(B)
부교육	1.070	1.015
모교육	1.084	1.038
월평균가구소득	1.004**	1.000
사교육비	1.000	0.998
형제자매수	0.899	0.997
부모애착	1.002	0.976
교육포부	1.895***	1.358***
학업성적	1.527***	1.071
성별 (남자=1)	0.573**	0.932
절대빈곤 (유=1)	0.998	0.595
N	2,271	
-2LL	1,920.781	
Pseudo R ² (Nagelkerke R ²)	0.401	

* p < .05, ** p < .01, *** p < .001

3.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

여기서는 우리나라 중등단계 진학 계열화의 결과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고-진학희망, 전문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희망의 세 유형의 여러 가지 생활실태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실제 이들 세 유형의 삶의 양태를 이해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중등단계 진학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진학계열화별로 자신의 교육포부와 희망직업에 대한 미래 실현기대감을 살펴보았다. 세 유형집단중 교육포부는 일반고-진학희망 유형집단이 가장 높고, 전문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희망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희망직업에 대한 미래 실현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설정한 미래 희망직업에 대한 실현은 큰 차이 없이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계열화의 결과 일반고-진학희망, 전문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 그룹간에 교육에 대한 포부가 뚜렷이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진학계열화별 교육포부

변인	교육포부
일반고-진학희망	16.2237
전문고-진학희망	15.3754
전문고-취업희망	14.4571
F	255.271***
N	2,536

*p < .05, **p < .01, ***p < .001

<표 III-7> 진학계열화별 미래 희망직업 실현 기대

변인	미래 직업실현에 대한 기대
일반고-진학희망	3.5352
전문고-진학희망	3.5128
전문고-취업희망	3.3929
F	1.754
N	2,009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학교규정에 대한 적응 정도, 학교 공부흥미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 규정에 대한 부적응 정도를 살펴보면, 전문고-취업희망 유형이 가장 적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전문고-진학희망, 일반고-진학희망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도를 살펴보면, 역시 전문고-취업희망, 전문고-진학희망, 일반고-진학희망의 순으로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고,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전문고-취업희망 유형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전문고-진학희망, 일반고-진학희망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는 전반적으로 전문고-취업희망, 전문고-진학희망, 일반고-진학희망의 유형의 순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진학계열화별 학교규정 부적응

변인	학교 교칙이나 규정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일반고-진학희망	1.7662
전문고-진학희망	1.9968
전문고-취업희망	2.0966
F	15.535***
N	2,542

*p < .05, **p < .01, ***p < .001

〈표 III-9〉 진학계열화별 학교 공부흥미도

변인	학교 공부에 흥미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일반고-진학희망	2.0434
전문고-진학희망	2.2748
전문고-취업희망	2.4489
F	18.308***
N	2,542

*p < .05, **p < .01, ***p < .001

〈표 III-10〉 진학계열화별 학교친구관계

변인	학교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일반고-진학희망	1.5431
전문고-진학희망	1.5414
전문고-취업희망	1.6215
F	0.938
N	2,542

*p < .05, **p < .01, ***p < .001

〈표 III-11〉 진학계열화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변인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일반고-진학희망	1.6924
전문고-진학희망	1.7564
전문고-취업희망	1.8497
F	3.366*
N	2,533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계열화별 자아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III-12). 자아관의 차이는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의 긍정적인 세 문항과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의 부정적인 세 문항의 총 여섯문항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긍정적인 세 문항으로 측정한 긍정적인 자아관은 모두 일반고-진학희망 유형이 제일 높고, 전문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희망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의 부정적인 세 문항으로 측정한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열화의 결과로 인해 세 계열 그룹간에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 존중감에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2〉 진학계열화별 자아관

변인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고-진학희망	3.34
전문고-진학희망	3.17
전문고-취업희망	3.04
F	14.795***
N	2,551
변인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고-진학희망	3.33
전문고-진학희망	3.13
전문고-취업희망	3.01
F	18.453***
N	2,551
변인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고-진학희망	3.60
전문고-진학희망	3.35
전문고-취업희망	3.30
F	21.805***
N	2,551
변인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고-진학희망	2.69
전문고-진학희망	2.74
전문고-취업희망	2.75
F	0.527
N	2,551
변인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반고-진학희망	2.79
전문고-진학희망	2.82
전문고-취업희망	2.75
F	0.302
N	2,551
변인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일반고-진학희망	2.52
전문고-진학희망	2.55
전문고-취업희망	2.62
F	0.922
N	2,551

*p < .05, **p < .01, ***p < .001

생활만족도의 경우에도 일반고-진학희망 유형이 가장 높고, 전문고-진학희망, 전문고-취업희망의 유형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진학계열화별 생활만족도

변인	생활만족도
일반고-진학희망	3.47
전문고-진학희망	3.35
전문고-취업희망	3.30
F	6.173**
N	2,551

*p < .05, **p < .01,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교단계 진학계열화의 결과, 교육포부, 학교 생활적응도, 자아관, 생활만족도의 모든 측면에서 일관되게 인문고-진학 유형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나고, 전문고-진학, 전문고-취업의 유형으로 낮게 뚜렷한 계열화가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력이 낮은 계열화에 속하게 된 학생들은 낮은 교육포부를 지닌 상태에서 학교의 전반적인 생활에 부적응하며, 낮은 자아관과 정체성을 지닌채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 상태에서 지내며, 반대로 높은 계열화에 속하게 된 학생들은 반대로 높은 교육포부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적응하며 높은 자아관과 정체성을 지니며 높은 생활만족도를 지니고 생활해가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IV. 결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들의 진학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등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원래 전문고의 기능에 충실한 전문고-취업희망 유형집단 대비 인문고-진학희망 유형집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로 소득이 높거나 학업성적이 높거나 교육포부가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등단계 계열화의 일차적인 분화현상을 결정짓는 것은 소득과 학업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고 내부에서 일어난 계열화 즉, 전문고-취업희망 집단과 전문고-진학희망 집단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 집단을 구분짓는 변수는 교육포부만이 유일하게 이들 집단을 구분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등단계 계열화의 이차적인 분화현상인 전문고 내 분화현상은 교육포부 변수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들 세 계열화의 결과가 이들 내부 집단구성원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교육포부, 학교적응도, 자아관, 생활만족도의 네 측면으로 나눠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교육포부, 학교적응도, 자아관, 생활만족의 모든 측면에서 인문고-진학, 전문고-진학, 전문고-취업의 순으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계열화에 속하게 된 학생들은 높은 교육포부를 지니고 학교생활에 충실히 적응하며

높은 자아관과 정체성을 지니며 높은 생활만족도를 지니고 활기차게 생활해
각 있는 반면, 중간정도의 계열화에 속한 사람들은 중간정도의 정체감으로
낮은 계열화에 속하게 된 학생들은 낮은 정체감으로 낮은 교육포부, 낮은
학교 적응도, 낮은 자아관, 낮은 생활만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전문고의 위상 재정립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소득과 학업성적을 매개로 일차
로 전문고-인문고간의 수직적인 분화가 일어나 차별적으로 계열화하고, 이
차로 다시 전문고안에서 교육포부를 매개로 취업지향과 진학지향의 이차 수
직적인 분화가 일어나 다시 이차 차별적으로 계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
문-진학, 전문-진학, 전문-취업의 순으로 수직적 차별화의 계열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의 중등단계 진학선택의 계열화는 수직적 차
별적 계열화의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적 차별화의 상위 지점을 선점한 높은 계열의 청소년
들을 제외하곤 중간 계열이나 낮은 계열의 청소년들에게는 낮은 정체감과
낮은 자존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산실이었
던 전문고 청소년들은 자부심보다는 낮은 자존감으로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
는 결국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지속적인 전문계
고 감소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한국의 교육계열화가 한국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계열화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담
보한 계열화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전문고가 원래의 직업교육을 담보하

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육계열화가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수평적 다양성을 띠는 형태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즉, 미래의 과학영재를 길러내는 과학고, 미래의 어학영재를 길러내는 외고처럼 전문고의 위상정립을 미래의 기술영재를 길러내는 학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전문고의 명칭을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마이스터고 등으로 개칭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2) 전문고 직업교육 기능의 회복 및 개선

다음으로 전문고의 직업교육 기능을 미래 한국산업인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기술인력 배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전단계인 기초 기술교육을 함양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단계에서부터 전문고와 산업현장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각 분야의 이론 교육과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병행하여 미래 전문기술함양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충실히 닦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래 산업 현장의 실무와 계속 교육을 통해 명실공히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탄탄히 닦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전문고 졸업생의 졸업후 계속 교육의 제도화

다음으로 전문고 기술영재들의 졸업후 진로성취과정에서 자신의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진로트랙의 제도화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고를 졸업한 기술영재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 직장과 병행하여 고등교육의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상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한 계속 교육기회부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고를 졸업한 기술영재들이 졸업후 관련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우대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고보다 향상된 기술교육프로그램을

관련 계열의 대학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관련 계열 대학의 기술교육프로그램은 전문고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성을 띠는 프로그램으로 하되 그보다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영혜 외(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5-27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김기현·방하남(2005).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사회학, 39(5), 119-151.

대통령직 인수위(2008).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36(4), 193-222.

서우석·정철영·이광호·채영병·허영준·김재호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106-133

이용환, 안선영, 금지현, 주현미(1998). 춘천농공고등학교 종합 발전 방안. 춘천: 춘천농공고등학교.

장상수(2000).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 671-708.

조부경(200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생활적응실태: 사회 상경 정보계열 컴퓨터 관련학과 중심. 성균관 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육성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S95-S112.

Crosnoe, R.(2002). High school curriculum track and adolescent association with delinquent friend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2), 143–167.

Gamoran, A. & Berends, M. (1987). The effects of stratification in secondary school: Synthesis of survey and ethnographic research.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57, 415–435.

Hanusheck, E. A. & Wößmann, L. (2005). Does educational tracking affect performance and inequality: Differences-in-differences evidence across countries. Ifo Working Paper No. 1: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unich.

Hout, M. (2004).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revisited: Irish educational mobility in comparative perspective. Working paper Survey Research Center a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Ireson, J. & Hallam, S. (2001). Ability grouping in education. London: Sage.

Lucas, S. R. (1999). Tracking inequality.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American high schools. New York: Wiley.

Marsh, H. W. & Craven, R. (2002). The pivotal role of frames of reference in academic self-concept formation: The big fish little pond effect. In F. Pajares & T. Urdan (Eds.), *Adolescence and education* (Vol. II, pp.83–123.).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Marsh, H. W. & Hau, K. T. (2003). Big fish little 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A cross-cultural(26 country) test of the negative effects of academically selective schools. *American Psychologist*, 58, 364–376.

McLanahan, (1997). Parents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4), 873–901.

Oakes, J. (1985). *Keeping track: How schools structure inequali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Rosenbaum, J. (1980). Social implications of educational grouping.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8, 361-401.

Slavin, R. (1990). Ability grouping, cooperative learning, and the gifted.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4, 3-8.

Tygart, C. (1989). Strain theory and public school vandalism: Academic tracking, school social status,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Youth & Society*, 20, 106-118.

Yonezawa, s., Wells, A. S. & Serna, I. (2002). Choosing tracks: "Freedom of choice" in detracking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1), 37-67.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8-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VI: 조사개요보고서 / 이경상·임희진·안선영
- 08-R01-1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
-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 계열화의 관련요인 및 결과 / 이경상·안선영
- 08-R02 초·중·고·대학생 의식구조 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 세대관 및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이창호·김종길·이항우
- 08-R03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최인재·임지연·김형주
- 08-R03-1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 임지연·최인재·김형주
- 08-R03-2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 III : 청소년종합통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 김형주·최인재·임지연
- 08-R04 청소년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이용실태와 주제적 참여 방안 모색 연구 :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조혜영·유진이
- 08-R05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 윤철경·유성렬
- 08-R06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맹영임·김민
- 08-R07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 양계민·정진경
- 08-R08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 백혜정·김은정
- 08-R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09-1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III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통계표] / 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 08-R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복지정책 비교 및 발전방안 연구 / 이해연·서정아·김영호·이용교
- 08-R11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강혜규
- 08-R12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이춘화·성운숙·조아미
-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 성운숙·이춘화·유의선
- 08-R1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 김경준·오성배·강태중·정유성·이부미·조정아
- 08-R13-1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연구 / 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 08-R13-2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 정병호·김찬호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총괄보고서 / 문경숙·김현철·김지연·민경석 (자체번호 08-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문경숙·김현철·김지연 외 5명 (자체번호 08-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2-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I -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 교육·가족·청소년정책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현철·문경숙 외 11명 (자체번호 08-R14-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1**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김지연·소경희·김진화·강영배 (자체번호 08-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2**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최동선·임언·이수영 (자체번호 08-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태준·윤혜경 (자체번호 08-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4** 청소년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자율적 행동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김기현·김지연·장근영 (자체번호 08-R15-3)

■ 수시과제

- 08-R16 신정부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
-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대한 연구 / 배규한·이창호

■ 용역과제

- 08-R17 국립 영덕 청소년 환경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 김영한·서정아
- 08-R18 청소년의 국가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 오해섭·김형주
- 08-R20 초등학생용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최인재·백혜정
- 08-R21 2008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08-R22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오성배·김희진
- 08-R2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기금 위탁사업 평가연구 / 김기현
- 08-R24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연구 / 김현철·이경상·조혜영
- 08-R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형 개발연구 : 학교 내 설치를 중심으로 / 조혜영·김호순
- 08-R26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안전지표 개발 / 성운숙
- 08-R27 아동청소년정책통합에 따른 국립수련원의 사업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08-R28 한강특성공원 청소년원드서핑교육사업 평가 / 임지연
- 08-R29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오성배 · 강태중 · 이기범
- 08-R3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변화에 따른 급수별 자격연수 교과과정 개발연구 / 이춘화 · 김영한 · 박철웅 · 이상진
- 08-R31 2008 아동청소년백서 발간 / 김기현 · 이창호
- 08-R3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김지연 · 이경상
- 08-R33 아동청소년권리지수 개발연구 / 이해연 · 김영지 · 김신영
- 08-R34 2008년 지방행정기관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운숙 · 홍성례
- 08-R35 청소년 유해업소 구분기준 및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소방안연구 / 김영한 · 김희진
- 08-R36 2008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 / 김경준
- 08-R37 2008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 · 김형주
- 08-R38 2008청소년시설종합평가 / 윤철경 · 김경준 · 김영지 · 최창욱
- 08-R39 청소년글로벌 역량지표개발 및 활용방안연구 / 오해섭, 문경숙, 권일남, 김소희
- 08-R40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맹영임 · 임경희
- 08-R4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 성운숙 · 김경준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8-S01-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과 발전과제」 (3.28)
- 08-S01-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화」 (5.6)
- 08-S02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5.27)
- 08-S03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II 자료집」 (7.8)
- 08-S04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8.22)
- 08-S05 「청소년발달 지표의 현황과 과제」 (9.2)
- 08-S06 「청소년기 사회화에 관한 한일비교」 (9.16)
- 08-S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추진과제」 (9.19)
- 08-S08 「청소년 성장환경으로서의 대안교육 활성화방안」 (9.26)
- 08-S09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9.30)
- 08-S10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 한국 청소년 문화자본 지표 개발」 (9.26)
- 08-S11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1차 Workshop」 (9.26)
- 08-S12-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 (10.24)
- 08-S12-2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환경 국제비교연구 II」 (10.28)
- 08-S13 「청소년 인권신장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10.17)
- 08-S14 「청소년 세대특성 및 미래의 교육전망」 (10.17)
- 08-S15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실태 및 방향성 모색」 (10.14)
- 08-S16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10.17)
- 08-S1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10.17)

- 08-S18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10.16)
 08-S19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18)
 08-S20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2차 Workshop」 (11.24)
 08-S21 「이동·청소년 참여권 - 한·일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의식 실태」 (11.28)
 08-S22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3차 Workshop」 (12.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1호 (통권 제48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2호 (통권 제49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3호 (통권 제50호) / 학술정보팀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4호 (통권 제51호) / 학술정보팀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연구보고 08-R01-2

**청소년 고등학교 단계 진학계열화의
관련 요인 및 결과**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속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 786-299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31-4(93330)

ISBN 978-89-7816-728-4(93330) (세트)